

‘아덴만 여명작전’ 이후

金 국방 “생포 해적 국내송환... 재판할 것”

“韓선박 공격 첩보...한국인 보복살해 위협도”
삼호주얼리호 오만해역 근접...선장 수술 지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에 참석, 국회 국방위원들을 상대로 이번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적 사체 소말리아 인계될 듯
김관진 국방장관은 24일 청해부대가 생포한 해적 5명은 “국내 송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그같이 밝힌 뒤 “(국내에 도착하면) 일단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의 국내 이송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법무부와 행정 등을 중심으로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해적들이 한국선박을 공격할 것이라 첩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첩보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아덴만 해역에 다니는 선박들이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선사들이) 보안원을 탑승하고 선박내 안전실(안전구역)을 확보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군수지원함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오늘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소말리아에 납치된 우리 어선 ‘금미호’와 생포 해적과 맞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하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사살된 소말리아 해적 8명의 사체는 조만간 소말리아 정부 쪽에 인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24일 “현재 정부가 해적 사체 8구의 처리문제를 오만 주재 소말리아 대사관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3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군의 공격으로 8명의 동료 해적이 숨진 데 대한 보복으로 앞으로 한국인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모하메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해적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일 것이다”라며 “우리는 두 배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국은 나의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호주얼리호는 오만 해역에 근접했으나 생포 해적과 해적 사체 처리 문제를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려 목표지인 무스카트항에 조기 입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청해부대(최영함)는 삼호주얼리호를 정상적으로 압호, 호송 중으로 오만 근해에 도착하기 직전”이라며 “생포 해적과 해적 사체 처리를 협조 중이라서 27일이 돼야 입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출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석해군(58) 선장의 추가 수술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정부대응팀 양재현 서기

“해적 로켓, 최영함 겨냥” 아찔

저격수 증언...“선장, 대항했다는 이유로 총상”

지난 21일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개시 직후 해적 1명이 우리 청해부대 구축함 ‘최영함’(4500t급)을 향해 휴대용 로켓(RPG-7)을 겨냥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으로 구출작전 당시 저격수 임무를 맡은 박 모 중사는 “공격범이 선박으로 올라가도록 엄호사격을 하던 중 해적 1명이 RPG-7을 최영함 쪽으로 겨냥하는 것을 식별하고 조준사격으로 무력화했다”고 증언했다고 해군은 24일 전했다.
박 중사는 “만약 한 발이라도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면 아군 피해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 순간이 정말 긴박했다”고 말했다.
UDT 공격팀으로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에 진입했던 김 모 중사는 “선교에 진입해 해적을 제압한 뒤 수색 중 선교 모퉁이에 여러 명의 사람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선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김 중사는 “진입 후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입니다. 한국 사람은 고개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외치자 그때야 모두 안도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면서 “그러나 이때 선원 한 명이 ‘해적이 선장님을 쏘았습니다’라고 하자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장이 총상을 여러 군데 입었지만 의식이 있어서 평소 훈련대로 지휘를 했다”며 “선원들은 선장이 해적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그런 고초를 겪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1등 기관사 손재호씨 목숨 건 기지

UDT진입 직후 엔진 정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삼호주얼리호의 1등 기관사 손재호(53) 씨가 목숨을 건 기지를 발휘해 청해부대 작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4일 “손재호 기관사가 청해부대 특수전요원(UDT)들이 삼호주얼리호에 처음 진입하자 위협을 무릅쓰고 기관실로 달려가 엔진을 정지시켰다”며 “납치된 선박이 정전하면서 작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손 씨는 청해부대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선교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손 씨는 15명의 UDT 공격팀 가운데 2번팀이 삼호주얼리호 선교로 최초 진입하면서 “모두 얼드러라”고 고함을 지르며 해적들과 총격전을 벌인 틈을 이용해 기관실로 내달렸다.
당시 기관실에는 선원들이 엔진을 고의로 정지시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해적 3~4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기관실에 잠입한 손 씨는 엔진 스위치를 내렸고 이후 삼호주얼리호는 멈춰 섰다.
배가 멈추자 링스헬기의 저격수들은 고정된 표적을 저격할 수 있었고 선내로 진입한 UDT 대원들도 선박이 기동할 때 우려됐던 흔들림도 없이 안전한 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해양과학교를 나온 손 씨는 5해운의 외항선원으로 대해 군복무를 마쳤으며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라고 가족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반 총장, 작전 당시 오만에 있었다

오만정부 지원에 ‘숨은 역할’
외교부 관계자는 24일 “반 총장이 다룬 인접국을 거쳐 우리 시각으로 지난 19일 하루 일정으로 오만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오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
오만 정부는 지난 18일 1차 구출작전시 우리 요원 3명이 부상당하자 공군기를 띄워 오만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고 21일 2차 구출작전 때도 필요물자와 의료인력, 병원시설을 대비시키는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합뉴스

‘아덴만 작전’ 보안 유지해야... 세무노출 비판론 고개

軍 시간대별 상황 소상하게 언론에 브리핑
“향후 유사작전에 지장” 부적절 목소리 높아

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 내용도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 핵심 관계자들의 브리핑에서도 이런 내용 등이 소개됐다.
MP5 9mm 기관단총 등 해군 특수전요원(UDT/SEAL)의 무기재원이 고소란히 공개됐고, 요원들의 선박 진입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드러났다. 그간 공개할 것 같았던 작전 사항 등이 일부 포함된 것이다.
선장이 엔진오일에 물을 타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면서 시간을 버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도 해적들이 다음에 는 미리 알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네티즌 김모씨는 국방부 게시판(국방정책, 나도 한마디)에 올린 글에서 “소말리아 여명 작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칭찬하면서도 “언론보도를 보자나 걱정이

무적된다. 왜 각종 무기들의 제원이 낱말이 공개되는지, 합정 최고속도가 얼마고, 고속단정의 속도는 얼마이고, 헬기는 어떻게 무장했는지 등 그러한 정보들이 적에는 얼마나 유리한 정보인지 모르나”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원 구출 과정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군의 특수작전 방식이 공개되면 비판을 받았던 군이 이번에는 작전 이틀 만에 작전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동영상 언론에 제공한 것은 이례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featuring '미화특수방수 ENG 방수' products. Text includes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and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with a list of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이앤지 특수방수주'.

Advertisement for allergy treatment by Dr. Lee. Text includes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and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It features a photo of Dr. Lee and a list of symptoms and treatment details.